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66호

2025년 9월 14일(다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p>		



오늘의 미사

성 십자가 현양 축일

<p>▶ 1독서 : 민수기 21,4-9</p> <p>▶ 화답송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p> <p>▶ 2독서 : 필리피서 2,6-11</p>	<p>▶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 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 나이다. ◎</p> <p>▶ 복음 : 요한 3,13-17</p>
---	--

- 9월 21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9월 21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9월 21일 새벽미사는 본당의 날 행사로 인해 봉헌되지 않습니다.
미사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9월 봉성체 안내
9월 봉성체는 9월 18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9월 19일(금, 오후)
에 동쪽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9월 21일~27일)
- 매월 넷째 주 9월 28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알림

교리교육 주제

9월 14일(일): 예수는 누구인가?

9월 21일(일): 미사의 구성과 의미

(매일 미사책 실습)

시간: 오전 9:00,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 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② 본당의 날 행사

9월 21일 주일미사 후 점심식사에 이어, 오후 1시~3시30분까지 다채로운 게임과 퀴즈, 그리고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③ 본당의 날 행사에 도움을 주실 분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10월 5일 추석 위령 합동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및 단체

① 기아모쿠 구역모임

일시: 9월 20(토) 오후 5:30

문의: 김민자 아가다
(907-570-2034)

② 알라모아나 구역모임

일시: 9월 27(토) 오후 6:00

문의: 김엠마(228-0088)

③ 와이파후 구역모임

일시: 9월 27(토) 오후 6:00

문의: 안린지 마르첼라(391-8347)

④ 하와이카이 구역모임

일시: 9월 28(일) 오후 6:00

문의: 김글라라(349-2654)

기타공지

■ 故 김종숙(말따)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연도: 9월 14일(일) 교중미사 후

많은 참석과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제대꽃 봉헌 감사합니다.

김휘순 카타리나

※ 본당의 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최미근 레지나, 조유호 빈센치오, 조원임 아가다, 서상순 안나

Sun Hui Chong



헌금

10월 4/5일 'Ohana in Christ Diocesan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8월 30/31일 : \$11,260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46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820	\$5,510	\$1,277	\$653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 213-321-87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 (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 10 강]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창조물이 우리의 소유물, 즉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창조물이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놀라운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로마 8,19-27) 이는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의 흔적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의 성취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심에 굴복하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아름다운 것들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창조물에도 일어났습니다. 죄의 비극적인 경험으로, 하느님과 끊어진 친교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원래의 친교를 산산조각냈고, 결국 창조물을 오염시켜 노예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근시안적 시각에 종속시켰습니다. 하느님과 친교가 깨어질 때, 인간은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고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자유의 전망, 보편적 구원의 전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기쁘게 강조하는 것으로, 그는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탄식하고, 우리 인간이 탄식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은 메마르고 위로가 없는 한탄이 아니라, 사도가 설명하듯이, “출산하는 여인의 탄식입니다. 그것은 고통 받는 이들의 탄식이지만,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아는 이들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결과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함께, 닫힌 마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의해 구원 받았음을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것들 안에서 부활의 징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부활의 징표를 이미 관상하고 맛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악의 징표, 이기심과 죄의 징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우는 이들, 소외된 이들, 절망하는 이들과 연대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상처받고 굴욕 당한 마음들과 인간의 불경함으로 망친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하고자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화해시키십니다. 다시 한 번, 성령 - 우리의 숨결, 우리 마음에 탄식과 기대를 살아있게 유지하시는 분 - 께서 도우려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을 넘어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추천영상: Youtube 이병근 신부 희년 특강



알아드립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성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에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성 십자가 현양 축일 강론 요약본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서 구리 뱀을 바라본 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써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십자가를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 내 삶의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남의 십자가를 보며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져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듯,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 속 십자가들이 때로 무겁고 아프지만,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세상 안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 ‘미사’ 해설(2)

미사란 무엇인가?

셋째, 미사는 만남의 시간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미사란 단어는 사도시대 때 “빵 나눔 예식” 혹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빵을 나누는 행위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친교의 공동체로서 중요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강조하던 미사는 성찬례였으며, 동시에 공동체의 만남, 공동체의 식사 개념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미사라는 단어 안에 “하느님과 백성들의 만남”, “공동체의 친교”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에 “연중 주일 감사송 10”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축제의 이날 당신의 가족들이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빵을 나누어 받으며...” 미사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하느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는 “만남”이며, “친교”의 시간입니다.

넷째, 미사는 거룩함으로의 시간이다. 미사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됩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영적 위로와 만족을 제공합니다. 물론 미사가 제공하는 이러한 은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가진 상징과 표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형식적으로만 봉헌할 경우에는 미사가 주는 거룩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가 주는 거룩함의 지향을 올바르게 알고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사 중 사제가 초대하는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기도처럼, 거룩한 식사에 초대받아, 거룩해지는 시간이 곧 미사입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p>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p> <p>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 (808)798-5100 Email: sharis@arborfg.com</p>	<p style="text-align: center;">최 니콜 부동산</p> <p>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p>	<p style="text-align: center;">메디케어 보험</p> <p>(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p>
<p style="text-align: center;">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p> <p>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p>	<p style="text-align: center;">A'ALA Meat & Seafood Inc</p> <p>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철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p>	<p style="text-align: center;">보나 최 부동산</p> <p>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p>